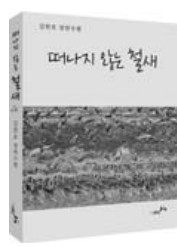


김한호 장편수필집 '떠나지 않는 철새' 출간



“우리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문학적으로 성찰한 김한호 작가의 수필집 '떠나지 않는 철새'가 출간됐다. 사진은 물 위에 떠 있는 고니 무리. <광주매일DB>

기후위기 시대, 인간·자연의 공존을 묻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문학적으로 성찰한 수필집이 출간됐다. 수필가이자 문학평론가인 김한호 작가가 환경 오염과 생태 위기를 주제로 한 장편수필집 '떠나지 않는 철새' (북나비출판)를 펴냈다. 이 책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문제를 작가 특유의 관찰력과 사색으로 풀어낸 생태 인문학 저술이다. 특히 단편수필을 엮는 기존 형식에서 나아가 자연과 인간, 생태와 행복의 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며 새로운 수필 형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작가는 계절이 바뀌어도 떠나지 못한 채 텃새화된 철새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집필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자연 훼손으로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내몰리고,

환경 오염 현실 짚으며 지속 가능한 삶 가치 성찰



김한호 작가

인간 또한 공해와 오염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본다. 동시에 자연과 공존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자연을 소재로 한 수필 전문 20편과 수필 일부 38편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자전적 삶의 이야기를 '자연-생태-인간-행복'이라는 서사로 엮어냈으며,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간 점도 특징이다. 작가는 “아름다운 삶이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며 “더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중한 동식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출신인 작가는 경성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ROTC 대위 전역 후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했으며 전남교육연구원 교육연수사,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중·고 교감과 교장을 역임했다. 교육 현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1994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한 이후 광주 문인협회 부회장과 평론분과위원장, 전남문인협회 수필분과위원장, 국제PEN 광주지부 부이사장 등을 맡았으며 현재는 전남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난해 발간한 '마음의 꽃'을 비롯해 모두 13권이 있으며 대한민국문학대전 세종문학상, 한민족문화예술대전 대상(서울 특별시장상), 전남문학상, 광주문학상, 국제PEN 광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최명진 기자

새로운 책



▲고양이가 두고 간 세계=천희란 저자 한 번도 반려동물과 살아본 적 없는 초보 보호자가 첫 반려묘로 열다섯 살의 노령묘 세 마리를 맞이하며 겪은 치열하고도 다정한 모험을 담았다. 고양이 나이 열다섯은 사람 나이로 80대에 해당한다. 고양이와의 일상은 기력이 쇠한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돌봄과 헌신이었고,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었다. 세 고양이를 차례로 떠나보낸 뒤 찾아온 상실감과 후회는 세계가 붕괴하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작가는 슬픔에만 주저앉지 않는다. /김영사·1만6천800원



▲침터의 세계, 그리고 다시 봄=김은녕 저자 국가의 제도도, 정부의 지원도 없이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한 청소년 침터는 IMF로 가정 해체가 가장 심하던 무렵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숨구멍이자 울타리였다. 아빠의 실직, 엄마의 가출, 할머니의 차별 등 여러 이유로 가정을 등질 수밖에 없던 아이들이 하나둘 침터로 들어왔다. 이 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집이 돼 준 침터가 지난 27년의 기록이자 어려운 시간을 버텨 낸 이들의 여정이다. /생각비행·1만8천원



▲어떤, 편의점=정진영 저자 '어떤, 편의점'은 우리 모두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 존재해온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통해 삶의 온도, 시대의 풍경을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산문집이다. 삼각김밥과 컵라면, '1+' 행사 상품, 심야의 캔맥주, 편의점 테이블 위의 낯선 대화까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던 장면들이 작가의 시선을 통과하며 유쾌한 웃음과 묘한 몽글몽글로 되살아난다. 가난했던 청춘의 기억, 시절 인연의 아련한 추억,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온까지 담았던 이 책은 편의점처럼 부담 없이 펼쳤다가도 어느 순간 목직한 울림으로 오래 마음에 남는다. /공출판사·1만5천원



▲꽃처럼 말해요=최숙희 글·그림 "안녕." 방긋 웃는 꽃처럼 어여쁜 아이의 인사에 주변이 봄처럼 환해진다. "고마워." 솜사탕처럼 달콤한 감사의 말이 웃음이 몽글몽글 피어난다. "미안해." 보슬비 같은 사과와 사과가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어 상처를 아물린다. 가끔은 가시 세운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말을 내뱉을 때도, 뽕뽕 부는 바람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을 때도 있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예쁜 말 씨앗이 가득하다. '꽃처럼 말해요'는 그 말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어여쁜 꽃을 피우기를, 그 꽃으로 주변을 곱게 물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림책이다. /책읽는곰·1만5천원

“배움은 삶 그 자체”...초고령사회 평생교육의 미래를 묻다

류영현 kbc광주방송 사장 '배움이 멈추지 않는 사회' 출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짚은 책이 출간됐다. 류영현 kbc광주방송 사장이 펴낸 인문학 도서 '배움이 멈추지 않는 사회' (어나더북스)다. 책은 지난해 말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프랑스가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154년, 일본이 37년이 걸린 데 비해 한국은 24년 만에 같은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짚으며, 세계적



에 묻다.

올해 고령인구에 포함됐다고 밝힌 류 사장은 자기 주도적인 삶과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고민 끝에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은 모두 5부 18장으로 구성됐다.

책에서는 평생교육 제도와 인프라가 확대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초고령 세대의 빈곤과 외로움, 사회적 고립, 지역 간 교육 격차, 농어촌 소멸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학습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학습에 가장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함께 짚는다. 또 평생교육은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한다. 헌법 제3조 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배움의 기회는 나이에 따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책은 모두 5부 18장으로 구성됐다.

1·2부에서는 평생교육의 가치와 역사, 정의를 다루고 3부에서는 국내 제도와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4부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체의 평생교육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5부에서는 해외 사례와 인구 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보편적 학습권 강화, 개인학습계좌 확대, 경로당 학습 거점화, 대학-지역 협력, 건강과 교육의 연계 체계 구축 등 5가지 전략도 제안한다. 류 사장은 “초고령사회에서의 평생교육 실현은 현재 세대의 과제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